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지 은

2019년 8월

#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김 지 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김지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8월

<국문초록>

##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김 지 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있는 중학생 1, 2, 3학년 48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또래애착, SNS 중독경향성,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480부 중 무성의하게 답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 40부를 제외한 44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Wilkinson이 개발한 청소년 또래애착 척도(Adolescent Friendship Attachment Scale:AFAS)를 사용하였고,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성현과 서경현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가 개발한 검사를 원호택, 이훈진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후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또래애착에서 하위요인 중 안정애착이 자아존중감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SNS 중독경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정애착이 통제되었을 때 자아존중감이 SNS 중독경향성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정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안정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또래애착에서 하위요인 중 회피애착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피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애착이 통제되었을 때 자아존중감이 SNS 중독경향성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 회피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회피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의 또래애착에서 하위요인 중 불안애착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안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애착이 높아질수록 SNS 중독경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애착이 통제되었을 때 자아존중감이 SNS 중독경향성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불안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중학생의 또래애착에서 하위요인중 안정애착과 회피애착은 SNS 중독경향성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안애착은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안애착을 가지고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SNS 중독경향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애착, 청소년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SNS 중독경향성

# 목 차

<b>I. 서 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5
3. 연구모형 .....	5
4. 용어의 정의 .....	6
<b>II. 이론적 배경</b> .....	7
1. 또래애착 .....	7
2. SNS 중독경향성 .....	10
가. SNS의 개념 .....	10
나. SNS 중독경향성 .....	11
3. 자아존중감 .....	13
4.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	16
5.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	17
6. 자아존중감과 SNS 중독경향성 .....	18
<b>III. 연구방법</b> .....	20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20
2. 측정도구 .....	21
3. 자료처리 .....	23
<b>IV. 연구결과 및 해석</b> .....	24
1.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및 일반적 경향성 .....	24
2.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25
가. 안정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26

나. 회피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27
다. 불안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28
<b>V. 논의 및 결론 .....</b>	<b>30</b>
1. 결과 요약 및 논의 .....	30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	32
<b>참고문헌 .....</b>	<b>34</b>
<b>Abstract .....</b>	<b>43</b>
<b>부록목차 .....</b>	<b>45</b>

##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20
표Ⅲ-2 또래애착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	21
표Ⅲ-3 SNS 중독경향성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	22
표Ⅲ-4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	22
표Ⅳ-1 주요변인 상관관계 및 일반적 경향성 .....	24
표Ⅳ-2 안정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26
표Ⅳ-3 회피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27
표Ⅳ-4 불안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28
표Ⅳ-5 매개효과 유의성검증 .....	29

## 그림 목차

그림 I -1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5
그림Ⅳ-1 불안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2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래로 2019년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중독에 대한 걱정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서비스의 이용률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높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그리고 요즘 10대들에게 인기 있는 틱톡까지 다양하다. SNS의 이용률이 높다는 것이 가지는 문제는 무엇일까? 단연 중독성의 문제이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절반이상(53.1%)이 SNS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중독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2012)에 의하면, 2011년 5월 한 달간 전국에 있는 중,고교생 1,45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청소년들이 SNS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로는 친구 사귀기(52.3%)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그다음 순위로는 일상생활의 정보제공(10.7%), 연예와 오락 정보제공(9.5%), 취미 생활의 정보제공(19.3%) 순이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실시한 2014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78.1%가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중학생이 8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SNS를 통해서 연결되어있는 친구(팔로워)의 수가 200명 이상 되는 경우가 과거와 비교해서 21.6%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가 요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매우 일반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의 통로가 됐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SNS를 통한 소통은 가족 및 친구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 상호관계에 필요한 정보획득 등의 긍정적인 부분만 지니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적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SNS 중독 현상으로 인해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29.2%로 증가하여 성인(11.3%)의 약 2.6배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학생 중독 위험군이 33.0%로 가장 높았다. 이는 SNS가 청소년들에게는 정보제공의 목적보다는 친구들과끼리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청소년들이 친구를 사귀고 소통하는데

SNS공간을 지나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인관계 유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SNS의 확산은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SNS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시간 투자를 하고 집착, 과잉소통과 몰입하는 현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SNS에 올라오는 새 글이나, 친구들의 반응, 댓글 등 새로운 소식을 즉시 확인하고 싶은 바람 때문에 SNS를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조다현, 2013). 이와 같은 것을 SNS 중독경향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SNS를 과다 사용하는 개개인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오윤경(2012)이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외로움과 우울이 높다고 했고, 박용기(2013)는 외로움을 타고 습관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일수록 중독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불안이 중독의 예측변수였고(이선자, 2013), 자아정체성의 부정적 영향(서거, 2013),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소외감이 예측 변인이라고 하였다.(조성현, 서경현, 2013). 강민주(2013)는 청소년이나 성인 초기에 자아와 친밀감의 형성과 같은 사회 심리적 발달에 SNS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고, SNS의 기능이나 이용 동기, 사용 태도에 따라 정치참여나 사회자본, 사이버불링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또한, 이상호(2013)는 SNS 중독경향성이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중독과는 달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업데이트에 대한 강박적인 의존성과 관심을 가지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SNS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보다 관계성 기능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또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적 특징과 관련이 된다(강지혜, 2013). Livingstone(200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SNS를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표현의 도구로 인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또래 간 관계성 기능이 두드러지는 SNS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중학생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중독 경향성을 보이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또래 애착을 살펴볼 수 있겠다. 또래 애착은 또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정서적 유대를 이루는 것으로서,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또래들간의 애착이 심리적 적응, 자기개념, 신체적 건강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친한 친구는 친밀감과 개방의 대상이면서 또한 중요한 인지, 정서적 자원으로 기능하며(Hazan &-Zeifman, 1994; Wilkinson, 2004), 친밀한 친구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을 증진 시켜주

고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를 완화 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시기는 부모에게 의존적이면서도 새로운 인간관계와 친밀한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극적인 시기(황창순, 2006)로서 또래로부터 지지와 애착을 발견하게 되며 우정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Collins & Repinski, 1994). 안정 애착이 높을수록 또래 집단을 신뢰하고 또래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불안 애착이 높을수록 또래 집단으로부터 관심받지 못하고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최영희, 김민선, 서영석, 2012). 이에 청소년들이 또래들과의 연결과 관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SNS 상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은 애착의 뼈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애착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SNS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안 애착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페이스북을 빈번하게 사용하며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 신경을 쓴다. 반면 애착 회피가 높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덜 사용하고 덜 개방적이며 페이스북 사용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Oldmeadow et al., 2013).

애착이론을 SNS 사용과 연관시켜서 조사한 Lee (2013)의 연구에서도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애착 결핍을 보상받기 위해서 SNS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애착 형태에 따라 SNS를 사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불안정한 애착유형은 인간관계에 거리를 두고 직접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피하기 위해서 SNS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부정적인 정보를 잊거나 억누르기 위해 SNS를 사용하지만 이로써 현실에서의 진정한 친밀감에 대한 도전은 멈추게 되는 것(Nitsburg et al., 2013)이라 하였다.

한편, SNS 중독 경향성과 또래 애착을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불안, 자기효능감, 자존감, 우울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자존감은 자기에 대해서 느끼는 긍정적 판단의 정도로서 개인적인 평가를 말한다. 즉 자신이 인지하는 자신의 심리적, 환경적인 안정감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중학생들은 초기 청소년기로서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성장이 자아의식의 발달을 촉진하기도 하는 때이다. 초등학교 시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고, 학업 등으로 자기의 능력을 평가하면서 자기개념의 하나인 자아존중감이 발달하며 이는 점차적으로 또래관계에서 타인에 의해 그 자아존중감이 인정되면서 안정되기 시작한다(김태련 외, 2004). 그런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아존중감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좌절된 대인관계의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SNS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황희은, 2014). Tanzghini와 Siedlecki(2013)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페이스북 중독 경향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사회적인 보상가설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직접적인 대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상적 수단으로서 SNS를 사용하여 대인관계에 대한 간접경험 및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SNS에 몰두하고 중독 경향성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또래 애착유형(안전, 회피, 불안 애착)의 정도에 따라서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보이고,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이 연구가 SNS 중독 경향성이 있는 중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래 애착을 높여주는 훈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도내 중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중학생의 또래 애착, SNS 중독 경향성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중학생의 또래 애착과 SNS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또래 애착과 SNS 중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가설1-1. 중학생의 안정 애착과 SNS 중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1-2. 중학생의 회피 애착과 SNS 중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1-3. 중학생의 불안 애착과 SNS 중독 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3.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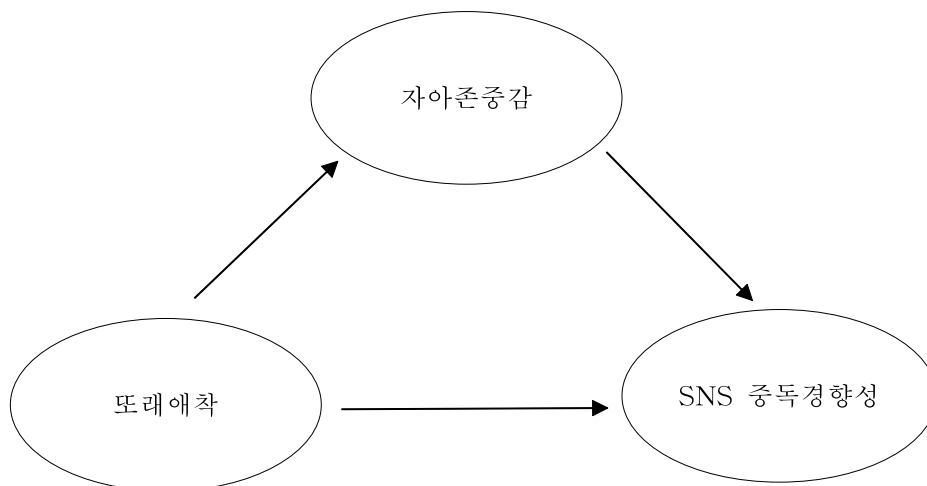


그림 I-1.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간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 4. 용어의 정의

##### 가.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가장 가까운 또래와의 정서적 결속을 뜻한다(최영희, 김민선, 서영석, 2012). Ainsworth(1989)는 초기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또래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ilkinson(2008)이 개발한 청소년또래애착 척도(Adolescent Friendship Attachment Scale: AFAS)를 최영희 등(2012)이 번안하여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한국판 청소년 또래 애착을 김미진(2014)이 쓴 것을 사용했다.

##### 나. SNS 중독 경향성

SNS 중독 경향성은 과거 인터넷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SNS로 옮겨가는 사이버 중독의 일종으로 ‘관계집착형 SNS 중독 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SNS 중독 경향성이란 병리적인 중독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SNS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SNS 사용 시간을 통제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학업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오윤경, 2012). 척도로는 정소영, 김종남(2014)이 대학생용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성현과 서경현(201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 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인식의 정도로서 개인적 인 평가를 말한다(Rosenberg, 1965). 즉, 자기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심리적, 환경적인 안정감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원호택, 이훈진(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또래애착

‘애착’은 애착행동, 애착행동체계(Hinde, 1982)라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들을 구별하는 것이 유용한데, 이 개념들은 대개 애착이론의 정신역동적, 행동적, 인지적 요소들을 대표한다. ‘애착’은 개인의 여러 가지 애착 상태와 질을 전반적으로 일컫는 용어다. 이 애착들은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눌 수 있다. 많은 정신 역동 용어처럼 ‘애착’은 경험적인 면과 이론적인 면을 함축한다. 애착을 느낀다는 것은 안전하고 안정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불안정 애착을 느끼는 사람은 애착 대상에 대해 여러 가지 감정, 예컨대 강렬한 사랑, 의존,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과민함, 조심스러움 등이 섞인 감정을 느낄지도 모른다. 안정감의 결핍은 가까이 있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면서도 약간의 버림받을 기미라도 보이면 애착 대상을 벌하겠다는 분노에 찬 결심을 갖는 상태로도 이론화할 수 있다.

‘애착 행동’은 ‘사람이 차별화하여 선호하는 어떤 개인과 접근성을 성취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으로 단순히 정의된다. 애착 행동은 애착 대상과 분리되거나 분리된다고 위협받음으로써 유발된다. 애착 행동은 접근성을 통해 끝나거나 완화되는데, 접근성은 위협의 성격에 따라 달라서, 대상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부터 신체적으로 가깝게 있기, 접촉 없이 말로 달래기, 꼭 안겨서 붙어 있기 등 다양하다. 애착과 애착 행동은 애착 행동체계에 기초를 둔다. 이 체계는 자신과 중요한 타인들, 그리고 그들의 상호관계를 대표하는 세계, 그리고 한 개인이 보이는 특별한 애착유형을 부호화하는 세계의 청사진 또는 모델이다. 양가적 애착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호감은 가지만 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자신은 지지받거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애착 대상을 저항적이고 공격적인 자아를 가진, 신뢰할 수 없고 거부하는 인물로 보는 작동모델을 갖고 있다(Holmes, 2005).

청소년기는 일차적 애착 대상인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특한 친밀감을 표현한다. 이는 보통 친밀감이 또래 청소년들과의 그룹 유대감이나 동질의식의 형태로 나타나

게 된다고 한다(박미란, 이지연, 2007). 청소년기는 친구와 우정의 개념이 중요해지는 만큼 또래로부터의 수용은 친밀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소속감을 제공하고 가족을 통해 얻어왔던 정서적 지원의 일부를 또래로부터 지원받게 된다(노향희, 2007).

또래란 학년, 연령, 성별에의 수준에서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행동과 발달이 유사하며, 사회적으로는 동일시 되고,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Perry & Bussey, 1984). 청소년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가정 이외의 외부에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도움을 받으며 당면한 공통의 문제와 고민을 공유하고 전형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는다(문은영, 1994).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또래 관계는 수직적, 위계적인 성인들과의 관계에서와 달리 수평적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균형적 상호작용의 맥락을 제공해준다(김진경, 2002).

Ainsworth(1989)가 제안한 청소년기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간의 또래 관계가 날로 중요하게 다가오면서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는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준다. 그리고 어른들의 충고나 조언 보다 또래들과의 의논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 외의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청소년기 또래와의 친밀한 접촉으로 인해서 건전한 또래 애착은 후에 청소년의 사회생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김예리, 2002). 또래 애착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또래 관계에서의 교감과 친밀감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런 친밀감의 욕구가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는 12세~14세로서 모든 것을 또래들끼리 비밀 없이 사실적으로 말하고 싶은 단짝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하였다. 이때 단짝 관계를 통해 형성된 또래 애착은 혹시 아동기에 생겼을 수도 있는 대인관계 문제가 치유되기도 하고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불안정감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Sullivan, 1953).

이 시기에 친근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청년기나 성인기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그리고 이 시기의 발달이 이후 다른 사람들과의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자신감과 자기가치감을 느끼는 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미란, 이지연, 2007). 청소년들에게 있어 친한 친구는 친밀감과 개방의 대상이면서 중요한 인지·정서적 자원으로 기능한다(Hazan & Zeifman, 1994; Wilkinson, 2004).



친밀한 친구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을 증가시키고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를 완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 애착이 안정되면 친밀감의 원천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사회적 지지를 의미하며, 타인의 신뢰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고 미래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자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또래 애착이 높은 경우, 부정적인 비행 행동이 증가하거나(강진아, 2009), 또래 동조가 높아 질수록 비행 행동이 증가한다(김정남, 2010)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다룬 연구도 있다. 또래 애착이 낮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또래에서 수용 받지 못한 경험은 각종 범죄, 약물 남용과 같은 문제행동, 우울, 외로움, 공격성과 같은 정신병리등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이 있게 된다(김진아, 2011). 친밀한 친구들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 심리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송미옥 외(2011)는 연구를 통해서 또래 관계의 특성은 청소년들의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래에 의해 거부당하는 것은 소수의 또래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또래에 의해 적극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비행과 공격성등의 다양한 문제행동과 관련이 깊다.

Weiss(1982)는 청소년기의 또래 애착의 중요한 측면들을 청소년들의 도전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또래들의 능력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기의 대인관계가 확대됨에 따라서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고, 또래 집단은 청소년기의 성격발달이나 사회성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춘재, 1988). 청소년 시기에 또래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자기개념, 신체적 건강상과 강한 연관이 있으며 또래 애착과 다양한 부적응 행동들과의 연구에서 또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청소년은 불안, 우울을 비롯한 심리 사회적 적응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Armsden & Greenberg, 1987).

본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이 SNS 중독 경향성을 예측할 거라는 가설에 근거하여 애착을 안정, 회피, 불안의 단계에서 다루고자 한다. 안정 애착은 타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 타인을 의지하고 신뢰할 줄 알며, 회피 애착은 타인과 지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상대에게 의지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Hazan, & Shaver, 1989). 불안 애착은 친밀감을 많이 표현하기도 하지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강한 불안감과 사랑받지 못하다는 기분을 가지고 있다. 안정 애착이 높을수록 또래 집단을 신뢰하고 또래들과의 의사소통도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불안 애착이

나 회피 애착이 높을수록 또래 집단으로부터 관심받지 못하고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최영희, 김민선, 서영석, 2012). 이에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SNS상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소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갈수록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2. SNS 중독경향성

### 가. SNS의 개념

SNS는 자기표현과 대화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개인의 특성을 쌓아가도록 하는 쌍방향 미디어 플랫폼을 말한다(Rettberg, 2009). 즉, 블로그, 이메일, 인트라넷, 유튜브, 팟캐스트, SNS, 마이크로블로깅 등 매우 광범위하게 다양하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은 소셜 미디어의 종류 중 하나인 SNS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황성욱, 박재진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에서는 SNS를 ‘인터넷상에서 동료,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견고하게 하거나 새로운 인맥들을 만들면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면서 기존의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 페이스북, 트위터로서 확장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Boyd와 Ellison(2007)은 SNS를 개인의 프로파일들을 형성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며,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웹 기반 서비스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SNS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프로필’과 자신의 일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그 친구로부터 자신이 드러낸 일상에 대해서 받는 ‘코멘트’ 즉, 댓글을 제안하였다.

SNS는 기존의 온라인 관계들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것과는 달리 오프라인에서의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온라인에서도 유지 시키고 더 확장하는 것에 중점을 둔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최세경, 광규태, 이봉규 2012). 또한 SNS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관계를 맺는 서비스이기(배영, 2012)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들보다 더 강하게 개인적인 성향이 SNS 이용형태와 이용목적에 반영되며,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자신의 욕구들을 드러내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최세경, 곽태규, 이봉규(2012)는 유아와 어머니 관계에서 위안을 줄 수 있는 애착과 같은 친밀감들이 특정 미디어를 사용하는 중간에도 생기기도 한다면서 사람들이 친밀감이 높은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심리적인 의존성들이 조금 더 있는 특정 미디어를 사용할 때 대인관계에서의 유대관계와 비슷하게 애착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 노출과 외향적인 커뮤니케이션 성향이 SNS 상호작용의 활성화, SNS 애착의 수준, 실제의 대인관계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나. SNS 중독 경향성

SNS 중독 경향성은 과거 인터넷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SNS로 이동하는 사이버중독의 일종으로서 ‘관계집착형 SNS 중독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SNS 중독 경향성은 항상 연결되어있는 모바일 환경의 특성상 집단 내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활동과 관계를 살피고 현실이 아닌 사이버상의 인간관계에서 집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2010년 스마트폰의 출현 이후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현상의 하나이다(이상호, 2013).

‘중독’은 특정한 행동이 자신이나 주위에 피해를 초래해서 이를 조절하려고 하지만 통제력을 잃고 반복하는 행동들을 의미한다(심리학 용어사전, 2014). 쾌락이나 고통의 완화라는 긍정적 보상 경험에서 시작되는 중독은 신체가 내성을 발달시켜서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자극이 중단되면 불쾌한 상태가 고통을 초래하는 금단현상을 나타낸다. 이렇듯 중독은 특정 행동에 과도하게 탐닉함에 따라 시간이나 경제적인 균형이 깨지고 그로 인한 역기능을 초래한다(김교헌, 2009).

SNS 중독 경향성이란 병리적인 중독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SNS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서 SNS 사용시간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서 학업과 일상생활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오윤경, 2012).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성인보다 약 2.9배 높았고, 학령별 스마트폰 위험군에서는 중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서비스는 단연 SNS라고 하였다. 하루 평균 SNS 이용횟수와 시간, SNS 과다사용 시간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 일정 시간 동안 SNS를 확인하지 않으면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 SNS 이용 후에 학습에 끼치는 피해 정도, 현실관계보다 SNS가 편한 정도에 있어서 인터넷 중독자가 일반 사용자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이상호(2013)는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SNS 중독을 조사하면서 정상적인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58.6%이지만 경증이나 중증 중독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20%에 달한다면, 자기통제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SNS 사용으로 인해서 중독이 여기에서 더 확대될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악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SNS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2004년에 페이스북을 처음 만든 미국에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페이스북 과다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Karaiskos, Tzavellas, Balta, & Paparrigopoulos, 2010), 학업성적 하락 및 기업생산성 감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페이스북은 본사 광고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 나오기가 쉽지 않을 만큼 중독성이 있다는 점을 보고했고, 노르웨이 베르겐대학 ‘페이스북 중독 연구팀’의 Andreassen은 2012년 연구를 통해서 페이스북 중독지수 BFAS(Bergen Facebook Addiction Scale)를 발표하였다.

황성욱과 박재진(2011)은 SNS 중독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 과도한 SNS 사용시간, 장시간 접속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장애 등을 들었다. 또한 SNS상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거나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인간관계에 대한 안정감을 느껴보려는 욕구가 중독을 가져온다고 하였다(Hofmann, Vohs, Baumeister, 2012). 이에 따라, SNS의 과다사용을 ‘소셜 네트워크 중독’(Kuss & Griffiths, 2011), ‘페이스북 중독 장애(Facebook Addiction Disorder)’(Karaiskos et al., 2010)라 명하여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SNS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praggins(2009)는 SNS의 문제가 되는 사용이 행복, 자존감, 삶의 만족감소와 관련이 있고, Wilson, Fornasier, White(2010)는 성격특질과 관련지어서 높은 외향성과 낮은 성실성을 가진 사용자들이 SNS중독 경향성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이 실제 사회환경에서 자기의 웅대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대신에 SNS에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며,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SNS 과다사용이나 인터넷 상에서의 보상경험과 정적상관이 있었다(Kuss & Griffiths, 2011).

###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에 관한 연구는 James(1890)에 의해 시작되었다. James(1890)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 가치와 포부, 개인의 성취와 사회적 반응에 따른 성공, 주변 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사회적 기준 또는 부모나 친지, 주변인들의 평판에 관한 자기 강화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특정한 방식이자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였다.

이런 자기 가치감은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인관계에서 표출되는 가치감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쌓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자아 관념이다(류상평, 2016). 그리고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긍정적인 인식의 정도로서 개인적인 평가를 말한다(Rosenberg, 1965). 즉, 자기 스스로가 인지하는 자신의 환경적, 심리적인 안정감을 나타내주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안녕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예측 변인이기도 하다. 자신에 대해서 전반적인 긍정적인 평가와 우호적인 태도를 뜻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유능하거나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진다. 그와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부정적인 사고와 각종 중독과 같이 일탈적인 행동을 쉽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하여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태도로서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로 정의된다(Rosenberg, 1965).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기술, 신체 이미지, 혹은 자신감과 같은 특정한 개인 특성들의 평가라기보다 좀 더 “포괄적인(global)” 평가 요소 혹은 자기-개념으로 볼 수 있다(조혜진, 2006).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면서 존중하고 좋아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이다. 반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것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순례, 2017).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도구는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1965)이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에서의 친밀감, 만족감,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 생산적 수행능력 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분노를 잘 조절하며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와같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정신건강, 삶의 질과 관계가

되는 중요한 개념이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신의 가치에 관한 느낌이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좋은’ 존재로서 존중받고 좋아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나쁜’ 존재로서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가련하게 여기는 것으로 간단하게 구분 되어 왔다 (Kernis, 2003). 자아존중감은 자기평가의 긍정적인 성향을 말한다 (Bushman & Baumeister, 1998).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의 심리적 개념이면서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욕구가 자아존중감이다 (Baumeister & Boden, 1998).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 만족도, 타인에 대한 배려, 생산적 수행능력이 높으며 분노를 잘 조절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는 요인이다(Hoyle, Kernis, Leary, & Baldwin, 1999). 자아존중감은 성격과 같이 고정된 특성이라기보다 사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 성공이나 실패 경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되는 가변적인 마음 상태이다(Baumeister, 1998).

Kohut(2006)은 자아존중감을 원시적인 자기애의 만족으로부터 비롯된 자기(self)의 성장에 따라서 형성되는 자기개념이라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특성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서(Harter, 1998)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개인의 심리적인 개념이면서도 삶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욕구이기도 하다(Baumeister & Boden, 1998).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사회적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의 인식이자 가치평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과업 상 자신에 대해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대해서 Freud는 남근기(18개월~6세)라 했고, Erikson(1980)은 8단계의 사회 심리적 발달단계 중에서 2단계인 자율성 또는 수치심(18개월~3세)의 시기에 의존성과 자아존중감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어떻게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 자기 확신, 미래에 대한 의지가 생겨나고 이것이 바로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기반이 된다고 했다(양재한, 2005). 청소년이 사회적인 상호작용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면 자아존중감에 상처를 입게 되고(Sullivan, 1953; Wilburn & Smith, 2005),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에 불안감, 우울감 등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며(Garber, Robinson, & Valentiner, 1997; Heyman, Dweck, & Cain, 1992; Wilburn & Smith, 2005), 청소년기에 형성되어야 할 ‘자기상’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무력

감, 우울, 그리고 자살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된다(Overholser, Adams, Lehnert & Bribkman, 1995). 어떤 청소년들은 중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면 자아존중감이 떨어진다고(최경숙, 2007; 황유진, 2010; Seidman et al., 1994; Simmons & Blyth, 1987; Wigfield et al., 1991). 자아존중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개인에게 한가지의 스트레스가 아닌 이중으로 이어져서 나타날 때이다. 즉, 중학생이 되고 난 후에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서, 남녀 간의 이성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가족의 변화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최경숙 2007; Simmons, Blyth, 1987).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신체적 성숙, 교육적 환경과 또래 관계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나 가치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설정하는 단계 이면서 중요한 성취의 지표로써 의미들을 가진다(김현정, 2012).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느낌과 전반적인 자기평가이다(정현진, 2013).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차재선, 2013; Campbell, 1981)으로 자기가치감(self-worth), 자신감(self-confidence)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 있는 요인이다(최수진, 2014).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내적 자원에 따라 높거나 낮을 수 있는 것으로 성공 경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이무석, 2014). 자기존중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자아존중감이다(이슬, 2014). 이선영(2014)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욕구로서 개인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적응, 또한 삶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요인이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를 평가한다는 개념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과 태도, 성공에 대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회적 바람직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며 생활 전반에 대해 스스로 지각하는 자기 효능성에 대한 자기인식으로서 정의되어 질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을 스스로 평가해서 만족감 혹은 불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성범 외(2012)의 연구에서는 또래들과의 관계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발달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하면서 친근하다고 느끼는 친구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는 친구가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고 하였고, 신미, 전성희, 유미숙(2012)도 부모, 선생님,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가 초기의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과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 4.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여러 대인관계 들을 유지 시키고 발전하기 위해서 SNS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이 2011년 7월 한 달 동안 전국의 중, 고교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SNS를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친구교제(52.3%)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인간의 필수적인 욕구이고, 애착의 뼈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애착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SNS에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zad & Uygurer, 2014). 또한, 10대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SNS를 사용한다고 하면서도 또래 집단 안에서의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더 중심이 맞춰져 있다. 청소년들은 SNS상에서 자기를 표현할 기회를 가지면서 자아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Livingstone, 2008).

회피 애착, 불안 애착과 페이스북 사용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높은 불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페이스북을 자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쓴다고 하였다. 또한, 회피 애착이 높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덜 사용하고 덜 개방적이며 페이스북 사용에 대해 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Oldmeadow, et al., 2013). 애착유형에 따라 SNS의 이용방식에서 서로 다른 차이가 나타나는데, 불안정한 애착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좀 더 거리를 두고 직접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피하기 위해서 SNS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부정적인 정보를 잊거나 억누르기 위해 SNS를 사용하지만 이로써 진정한 친밀감에 대한 도전은 멈추게 되는 것(Nitsburg, et al., 2013)이라 하였다. 애착이론을 SNS 사용과 연관시켜서 진행한 Lee (2013)의 연구에서도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뢰와 애착 결합을 위해서 SNS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애착의 유형에 따른 사회자원의 형성을 알아봤을 때, 회피 애착은 SNS를 통해서 사회적 자원(전문적 지식과 정보, 다양한 정보와 의견 등)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이었고,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이 낮은 건강한 참가자들은 SNS를 이용하여 사회적 자원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포함한 청소년기 시기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또래에 대한 애착으로 전



환되는 시기(전효정, 2006; 조은정, 2008)로서 부모 애착이 낮아도 또래 애착은 높은 청소년들의 적응력이 반대의 경우보다 높았다(Laible, 2000). 황창순(2006)의 연구에 의하면 초기 청소년은 후기 아동에 비해 애착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모보다 친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또래와의 연결과 관계에 대한 의존성은 휴대전화 사용에 더 의존하게 하며(장혜진, 2002),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휴대전화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고(성운숙, 2008),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하고 또래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휴대전화 의존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황창순, 2006).

## 5.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부적절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며 자아 거부, 자아멸시, 부정적인 자아평가를 암시한다(Rosenberg, 1965). 이는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 개인이 자기 자신은 무능하고 가치가 없다고 지각할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신뢰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신념과 믿음에 기반을 둔 부정적인 작동모델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는 타인에게도 다가갈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에 바탕을 두고 가치 있고 긍정적인 작동모델을 만든다. 이는 높은 자존감과 연관이 있다.

Greenberg 외(1983)는 청소년기의 또래 애착의 정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직접적으로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했다. Armsden과 Greenberg(1987)은 청소년들의 또래 애착과 부모 애착의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했고, Rice(1990)의 조사에서도 자아존중감, 애착, 사회적 능력, 정체감, 정서적 적응 사이에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MeComick과 Kennedy(1994)도 자아존중감과 애착의 질이 유사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반면, Peterson 등(1995)은 또래 애착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오히려 Brennan과 Bosson은 (1998)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의 반응에 무

관심하고,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의 가치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Griffin & Florian, 1998)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장휘숙(1997)이 중, 고,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청년기 애착에 대한 연구에서는 친구에 대한 애착은 늘어난 반면, 부모에 대한 애착은 줄어들며 이 효과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발달에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정수(2006)도 또래 애착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 6. 자아존중감과 SNS 중독 경향성

최근 SNS 중독 경향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Mehdizadeh(2010)의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이 느끼는 자아존중감과 SNS 이용 빈도 및 시간은 부적 상관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이야기들을 자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Tazghini와 Siedlecki(2013)는 페이스북과 자아존중감의 사용 관계에 대해서, 사회적 보상가설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사회적 보상가설은 내성적이면서 자아존중감이 낮고 사회불안이 높은 신경증적인 사람들이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거나 중독 경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면대면에서의 사회적 자본(다양한 의견과 정보, 전문적 정보와 지식 등)과 부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상적인 수단으로 SNS를 사용함으로써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감 및 간접경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SNS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중독 경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청소년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면 자아존중감에 상처를 입게 되며(Sullivan, 1953; Wilburn & Smith, 2005),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좌절된 대인관계의 욕구에 대한 대리만족을 위해서 SNS의 사용에 몰두할 가능성이 많았다. 황희은(2014)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을 수록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다치게 되는 상황이 많으며, 대인관계에서 실패로 인해서 좌절된 욕구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SNS에 더욱더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박나리(2015)의 연구에서도 SNS는 현실 세계에서 겪게 되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현실에서는 관계하기 쉽지 않은 대인관계를 이어주게 해주는 공간으로 보았다.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정체감의

혼란과 불안, 우울, 소외감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서 인터넷에 지나치게 몰입되는  
보인다 했고(Griffth & Word, 2000), 인터넷 중독자의 상당수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의 대인관계에 쉽게  
몰입한다(김혜원, 2001; 남영옥, 2002 ; Young, 1999). 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 녀 1, 2, 3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배부 기간은 3월 20일부터 시작하여 3월 29일에 전부 회수하였다. 4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가운데 무성의하게 답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 40부를 제외한 44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표Ⅲ-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440)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성별	남학생	131	29.8	440명(100%)
	여학생	309	70.2	
학년	1학년	52	11.8	440명(100%)
	2학년	111	25.2	
	3학년	277	63.0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Ⅲ-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131명(29.8%), 여학생이 309명(70.2%)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52명(11.8%), 2학년 111명(25.2%), 3학년 277명(63.01%)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한국판 청소년 또래애착척도(Adolescent Friendship Attachment Scale: AFAS)

Wilkinson(2008)이 개발한 청소년또래애착 척도(Aolescent Friendship Attachmnet Scale: AFAS)를 최영희 등(2012)이 번안하여 한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한국판 청소년 또래애착을 김미진(2014)이 쓴 것을 사용했다. 중학생들에게 사용하여도 괜찮은 내용으로 보여서 사용했다. 이 척도는 안정, 회피, 불안 등 세 가지 애착유형들을 측정한다. 총 25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한다. 최영희 등(2012)에서 전체문항에서 Cronbach'a는 .74, 안정애착 .89, 회피애착 .70, 불안애착 .78로 나타났다. 김미진(2014)의 연구에서는 전체문항에서 Cronbach'a는 .70, 안정애착 .91, 회피애착 .75, 불안애착.77로 나타났다.

또래애착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Ⅲ-2와 같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안정애착 .899, 불안애착 .781, 회피애착 .695로 나타났다.

표Ⅲ-2 또래애착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안정애착	1, 2, 3, 7, 8, 9, 13, 17, 18, 19, 21, 22, 25	13	.899
불안애착	4, 6, 10, 11, 15, 16, 23, 24	8	.781
회피애착	5, 12, 14, 20	4	.695

### (2) SNS 중독경향성 척도 (Internalized Shame Scale: ISS)

본 연구에서는 조성현과 서경현(201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오윤경(2012)의 질문지에 포함되어 있는 11문항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뽑은 9문항을 더 추가하여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

다. 그리고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조성현과 서경현(2013)에서 전체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94이었다.

SNS 중독경향성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Ⅲ-3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12로 나타났다.

표Ⅲ-3 SNS 중독경향성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SNS 중독경향성	1~20	20	.912

### (3) 자아존중감 척도 (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원호택, 이훈진(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판 척도이다. 단일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문항이다. 역채점 문항은 3, 5, 8, 9, 10이고,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각 문항이 본인에게 해당 되는 정도에 따라서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희천과 장재원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8 - .90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Ⅲ-4와 같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35로 나타났다.

표Ⅲ-4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자아존중감	1, 2, 3*, 4, 5*, 6, 7, 8*, 9*, 10*	10	.835

\* 은 역채점 문항

###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다.

셋째, 또래 애착과 SNS 중독 경향성 및 자존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또래애착(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Baron & Kenny(1985)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사용하였으며, Sobel(1982)의 검정방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및 일반적 경향성

표IV-1 주요변인 상관관계 및 일반적 경향성 (N= 440)

변인	1	2	3	4	5
1. 안정애착	1				
2. 불안애착	-.314**	1			
3. 회피애착	-.455**	.315**	1		
4. SNS 중독경향성	-.019	.333**	.031	1	
5. 자아존중감	.316**	-.283**	-.209**	-.222**	1
M	4.12	2.41	2.46	1.58	3.01
SD	.65	.74	.83	.51	.53
왜도	-.85	.31	.14	1.3	-.55
첨도	.72	-.10	-.41	1.5	.23

\*\* $p < .01$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와 상관관계를 표IV-1에 제시하였다. 안정애착은 불안애착( $r = -.314, p < .01$ ) 및 회피애착( $r = -.455, p < .01$ )과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자아존중감( $r = .316, p < .01$ )과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SNS 중독경향성( $r = -.019$ )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또래와의 안정애착이 높을수록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은 낮아지는 반면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안애착은 회피애착( $r = .315, p < .01$ ) 및 SNS 중독경향성( $r = .333, p < .01$ )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자아존중감( $r = -.283, p < .01$ )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또래와의 불안애착이 높아질수록 회피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은 높아지는 반면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회피애착은 자아존중감( $r = -.209, p < .01$ )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SNS 중독경향성( $r = .031$ )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또래와의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NS 중독경향성은 자아존중감( $r = -.222, p < .01$ )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가 정상성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 보았다. 왜도는 절대값 3을, 첨도는 8 또는 10을 초과하면 극단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Kline, 2005)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여 왜도와 첨도를 중심으로 자료의 정규성을 살펴 본 결과 관측된 변인 모두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또래애착(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5)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의미함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5)가 제안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세 번째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독립변수가 오직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매개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 반면에 세 번째 단계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두 번째 단계에서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보다 작게 되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이므로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Vam Dyne, Graham & Dienesch, 1994).

가. 안정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표IV-2 안정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N=440)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beta$	t	R <sup>2</sup>	F
1단계	안정애착	자아존중감	.259	.037	.316	6.974***	.100	48.636***
2단계	안정애착	SNS 중독경향성	-.015	.038	-.019	-.397	.000	.158
3단계	안정애착	SNS 중독경향성	.045	.039	.057	1.162	.052	12.086***
	자아존중감		-.233	.048	-.240	-4.900***		

\*\*\* $p < .001$

안정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2와 같다. 표1-6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독립변인인 안정애착이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eta = .316, p < .001$ ) 안정애착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인인 안정애착이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19, p = .691$ ).

셋째, 회귀방정식에서 안정애착이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이 SNS 중독경향성에 부적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40, p < .001$ ). 그리고 이때 독립변인인 안정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57, p = .246$ ).

이는 Baron과 Kenny(1985)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의 성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안정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회피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표IV-3 회피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N=440)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beta$	t	R <sup>2</sup>	F
1단계	회피애착	자아존중감	-.133	.030	-.209	-4.470***	.044	19.979***
2단계	회피애착	SNS 중독경향성	.019	.029	.031	.659	.001	.434
3단계	회피애착	SNS 중독경향성	-.010	.029	-.016	-.329	.050	11.432***
	자아존중감		-.219	.046	-.226	-4.734***		

\*\*\* $p < .001$

회피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3과 같다.

표IV-3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독립변인인 회피애착이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eta = -.209, p < .001$ ) 회피애착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인인 회피애착이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31, p = .510$ ).

셋째, 회귀방정식에서 회피애착이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이 SNS 중독경향성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26, p < .001$ ). 그리고 이때 독립변인인 회피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16, p = .743$ ).

이는 Baron과 Kenny(1985)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의 성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회피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불안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표IV-4 불안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N=440)

	예측변인	종속변인	B	SE	$\beta$	t	R <sup>2</sup>	F
1단계	불안애착	자아존중감	-.202	.033	-.283	-6.167***	.080	38.033***
2단계	불안애착	SNS 중독경향성	.231	.031	.333	7.401***	.111	54.778***
3단계	불안애착 자아존중감	SNS 중독경향성	.203 -.135	.032 .045	.294 -.139	6.317*** -2.994**	.129	32.369***

\*\*p<.01, \*\*\*p<.001

불안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4와 같다.

표IV-4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독립변인인 불안애착이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eta=-.283$ ,  $p<.001$ ) 불안애착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인인 불안애착이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eta=.333$ ,  $p<.001$ ) 불안애착이 높아질수록 SNS 중독경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방정식에서 불안애착이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이 SNS 중독경향성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30$ ,  $p<.01$ ). 그리고 이때 독립변인인 불안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방정식( $\beta=.333$ )보다 세 번째 방정식( $\beta=.294$ )에서 감소하였으며,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설명력인 R<sup>2</sup>값 또한 매개변인이 함께 투입됨으로써 11.1%( $F=54.778$ ,  $p<.001$ )에서 12.9%( $F=32.369$ ,  $p<.001$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불안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불안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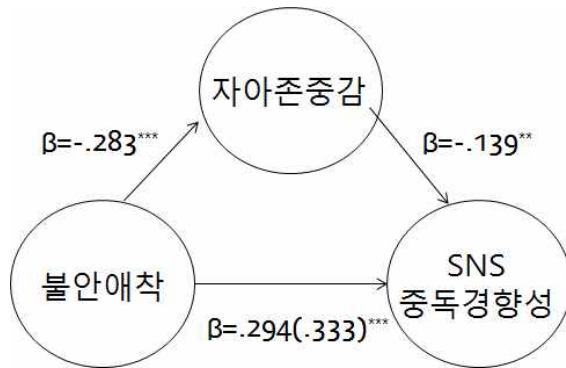


그림 IV-1 . 불안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앞서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불안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해보기 위하여 단순매개한계치를 구하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IV-5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애착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B값은 -.202, SE는 .033이였으며, 자아존중감과 SNS 중독경향성간의 관계에서 B값은 -.135, SE는 .045였다. 이를 바탕으로 Sobel Test 한 결과, Z값이 2.694로 절대 값 1.96보다 크게 나와 불안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IV-5 매개효과 유의성검증

변수			X→M		M→Y		Sobel Test	
X (독립변수)	M (매개변수)	Y (종속변수)	B	SE	B	SE	Z	P
불안애착	자아존중감	SNS 중독경향성	-.202	.033	-.135	.045	2.694	.000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앞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의 하위 유형 즉, 안정, 회피, 불안애착유형이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각각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안정애착이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애착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는 Greenberg(1983), Armsden과 Greenberg(1987), Rice(1990), MeComick과 Kennedy(199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불안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간 자존감의 매개효과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또래들 사이에서 정서적 적응과 소통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정애착이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정애착이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이 SNS 중독경향성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 안정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정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가설은 지지받지 못했다.

둘째, 회피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회피애착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현욱(2015)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줬다. 그리고 독립변인인 회피애착이 종속변

인인 SNS 중독경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ldmeakow(2013)의 연구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불안애착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더 자주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특징과 달리 회피애착은 오히려 덜 사용하고 덜 긍정적이며 덜 개방적이라고 했는데, 회피애착의 성격상 오프라인 뿐 만이 아니라 온라인 관계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회피애착이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이 SNS 중독경향성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 회피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피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가설은 지지받지 못했다. 회피애착이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하지 않는 것은 회피애착 수준이 높은 개인은 자기주장을 거의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평가와 비난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안정을 유지 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의 맥락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의 반응에 무관심하고(Brennan & Bosson, 1994),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의 가치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으며(Griffin & Florian, 1998), 페이스북의 프로필 삭제를 고려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프로필을 본다고 행복해지지도 않았다(Oldmeakow et al., 2013). 이것은 회피애착이 또래관계에서 애착의 효과를 보이는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연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서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애착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한 Oldmeakow et al., (2013)의 연구를 고려해 볼 때 불안애착과 달리 회피애착만이 가지는 독특한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불안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불안애착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인인 불안애착이 종속변인인 SNS 중독경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애착이 높아질수록 SNS 중독경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애착이 SNS 중독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불안애착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설은 지지되었다.

불안애착이 높은 개인의 경우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여 항상 안정이 필요하다(Brennan. et al., 1998)는 점을 감안하면 SNS에 몰입함으로써 이러한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안애착은 애착이 과잉 활성화되어 있어서 친밀감을 갈구하지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현실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한편, 페이스북과 같은 SNS상에서 애착욕구를 보상받기 위해서 자기표현 능력을 발휘한다(Olemeakow et al., 2013)하였다. SNS상에서 링크, 문자, 사진 등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향상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래애착 가운데 불안애착이 유일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또래와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중학생의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을 각 애착유형별로 어떻게 매개하여 SNS 중독경향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또래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SNS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학생이 또래애착(안정, 회피, 불안애착)과 자아존중감,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SNS 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중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 중 또래 애착의 각 유형(안정, 회피, 불안애착)들과 자아존중감을 검증함으로써 중학생이 SNS에 몰입하는 이유와 SNS 중독예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또래 애착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간 선행연구들에서 많이 이루어진 또래 애착의 높고 낮음이 아닌 안정, 회피, 불안 애착의 각 유형별로 살펴봄으로써 애착의 하위유형별로 SNS 중독 경향성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SNS 중독경향성을 보이는 중학생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또래 애착의 각 하위유형별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전략을 통해 개입하면 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과 문화에 따른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인구학적 배경이나 문화가 다른 곳이나 청소년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집단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 각 지역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시켜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자기 보고형 척도이기 때문에 자기 보고형 척도가 가지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설문에 응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솔직하게 답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와 부모의 보고식 검사 등의 방법으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SNS 과다사용에 대하여 각 애착유형별로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NS 중독경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켜서 불안애착을 보완할 수 있게 하는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민주 (2013). 소셜미디어사용에 따른 청소년과 성인초기의 자아정체감 및 친밀감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0(6), 1-28.
- 강지혜 (2013). **남녀 중학생의 대인불안과 자기제시동기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진아 (2009). **학대 경험 청소년의 비행 요인에 관한 탐구**.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곽윤희 (2011). **모바일 SNS 이용동기와 이용형태의 상관관계 연구: 트위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석만 (2012).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교현 (2009). **독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 독의 이해와 상담실제, 14-56.
- 김수경 (2016). **고등학생의 자극추구, 사회적민감성과 SNS 중독경향성과의 관계: 또래동조성을 매개변인으로**.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남 (2010). **또래동조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보호요인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아 (2011).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환경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3(2), 149-159.
- 김예지 (2018). **SNS에서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20대 성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련 (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현정 (201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약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8(2), 91-117.
- 남영옥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성중독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문제 행동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0), 173-207.

- 노향희 (2007). **애착, 정서표현갈등, 그리고 대인불안 사이의 관계: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류상평 (2016). **자존감이라는 독**. 허유영 역(2016). 청림출판.
- 박나리 (2015). **자존감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미란, 이지연 (2007). 또래애착이 초기청소년기 우정관계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자존감과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5(2), 81-95.
- 박순례 (2017).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집단프로그램이 성매매피해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박용기 (2013). 청소년의 SNS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13(4), 305-342.
- 배영 (2012).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 이용형태 비교연구: 서비스 이용요인과 SNS 이용 목적을 중심으로. **정보와 사회**, 23, 100-126.
- 서거 (2013). **페이스북 이용중독이 대학생의 사회성 및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미옥, 이승희 (2011). 부모애착과 또래관계 스트레스가 여중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15(20), 1-20.
-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2).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분석. **한국아동학회지**, 33(1), 81-92.
- 염선규 (2014). **모바일 SNS에 대한 애착이 우울감, 불안감,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모바일 페이스북 이용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윤경 (2012). **SNS 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우성범 외 (2012). 남녀청소년의 자존감, 친구애착,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 장모형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1093-1113.
- 우형진 , 이정기 (2012). 대학생들의 인구통계적 속성, 미디어 이용량, 자존감 수준과 안정성이 인터넷 포르노 몰입 및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학 연구**16(3), 55-84.

- 유현옥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과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존감안정성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무석 (2014). **나를 사라하게 하는 자존감**. 서울: 비전과 리더십.
- 이상호 (2013).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중독에 관한 정책적 함의 연구: 한국형 SNS 중독지수(KSAI)제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정책연구**, 11(1), 255-265.
- 이선자 (2013).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불안이 스마트폰의 SNS 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선영 (2014). **병리적 자기애와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의 관계: 자기개념구조의 역할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슬 (2014). **진정한 자존감과 가장된 자존감 간의 편견, 분노, 공격성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수 (2006).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희복, 김대환, 최지윤, 신명희 (2014). 청소년의 SNS 이용특성과 SNS 중독경향성 연구: 경기도와 강원도 중학생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6(1), 365-391.
- 장소천 (2014). **중학생의 불안정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 간의 관계: 기본심리욕구만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혜진 (2002). **휴대폰 중독적 사용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자기개념, 자기통제력, 충동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휘숙 (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6(1), 80-97.
- 전효정 (2006). 대학생의 인터넷중독과 다른 애착유형과 심리적 특성. **청소년학연구**, 13(3), 137-159.
- 정현진 (2013). **자존감 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과 우울 및 불안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다현 (2013). **SNS 중독경향성과 친구지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서연, 정주원 (2017). 중학의 SNS 중독경향성에 있어 내현적 소외감,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9(3), 125-140.
- 조성현, 서경현 (2013). SNS 중독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 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250.
- 조은정 (2008).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구애착의 매개효과검증. **청소년학연구**, 15(6), 299-321.
- 조혜진 (2006).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재선 (2013). **청소년의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자기애, 자기개념 명확성, 긍정적 착각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수진 (2014). **사회불안 성향자의 자존감 불안정성**.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세경, 광규태, 이봉규 (2012). 커뮤니케이션 성향과 모바일 SNS 애착이 SNS 상호작용과 이용 후 대인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회보**, 29(1).
- 최영희, 김민선, 서영석 (2012). 한국판 청소년또래애착 척도 타당화 연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73-296.
- 피승정 (2012). **SNS 사용행동에 따른 SNS 중독 가능성,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의 차이**.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96.
- 황성욱·박재진 (2011). 페이스북, 무엇이 문제인가? **광고연구 겨울 91호** 68-95.
- 황은숙 (2011). **청소년의 부적절한 휴대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애착과 충동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유진 (2010). **초기 청소년의 자존감 저하현상과 사회비교 경향성 및 공격 자의 식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창순 (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7(1), 201-225.
- 황희은 (2014). **자존감, 사회불안 및 대인관계 지향성이 중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reassen, C. S., Torsheim, T., Brunborg, G. S., & Pallesen, S. (2012). Development of a Facebook Addic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 110,

510-517.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M. (1998).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33.
- Brennan, K. A., & Bosson, J. K. (1998). Attachment style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and reactions to feedback from romantic partners: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al bases of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699-714.
- Boyd, D. M., & Ellison, N. B.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229.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 Collins, W. A., & Repinski, D. J. (1994). Relationship during adolesc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personal perspective. In R. Montemeyer, G. R. Adams, and T. P. Gullotta(Eds.), *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7-36). Thousand Oaks, CA: Sage.
- Garber, Robinson, Valentiner (1997).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self-worth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12-33.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2(5), 373-386.
-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8).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430-445.
- Harter, S. (1998).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53-617. New York: Wiley.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the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or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 London, UK: Jessica Kingsley.
- Heyman, Dweck, Cain (1992). Young children's vulnerability to self-blame and helplessness relationship to beliefs about goodness *Child Development* 63(2), 401-415.
- Hinde, R. (1982). 'Attachment: some conceptual and biological issues', in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ur*, C. M. Parkes and J. Stevenson-Hinde (eds.). London: Tavistock.
- Hofmann, W., Vohs, K. D. & Baumeister, R. F. (2012). What People Desire, Fee Conflicted About, and Try to Resist in Everyday Life. *Psychological Science*, 23(6), 582-8.
- Hoyle, R. H., Kernis, M. H., lesry, M. R., & Baldwin, M. W. (1999). *Selfhood: Identity, esteem, regulation*. Boulder, CO: Westview.
- James, W. (1890). *Psychology: Briefer Course*, New York: Collier Books.
- Jeremy Holmes (2005). *John Bowlby & Attachment Theory*. 이경숙역(2005). 존 볼비와 애착이론. 학지사.
- Karaiskos, D., Tzavellas, E., Balta, G., & Paparrigoulos. T. (2010). Social network addiction: A new clinical disorder? *European Psychiatry*, 25(1), 855.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 Psychological Inquiry*, 14(1), 1-26.
- Kohut, H. (2006). **자기의 회복**. (이재훈 외 공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은 1971에 출판).
-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 3528-3552.
- Laible, J. D., Carlo, G., & Raffaelli, M. (2006).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45-59.
- Lee, DY. (2013). The role of attachment style in building social from a social networking site: The interplay of anxiety and avoidance. *Computer in Human Behavior*, 29(4), 1499-1509.
- Livingstone, S. (2008). Taking risky opportunities in youthful content : Teenager'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for intimacy, privacy and self-expression. *New Media & Society*, 10, 393-411.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Mehdizadeh, S. (2010). Self-presentation 2.0: Narcissism and self-esteem on Facebook. *Cyber 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 357-364.
- Nitzburg, G. C. and Barry A. Farber. (2013) Putting up emotional(Facebook)walls? attachment status and emerging adult's experiences of social networking sit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11), 1183-1190.
- Oldmeadow, J. A, Sally Quinn, Rachel Kowert. (2013). Attachment style, social skills, and Facebook use amongst adul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3), 1142-1149.
- Overholser, Adams, Lehnert, Bribkman, (1995). Self-esteem benefits and suicidal tendenci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 Adolescent Psychiatry, 34(7), 919-928.
- Ozad, B. E, Uygurer, G. (2014). Attachment needs and social networking sit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2*, 43-52.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Philip J. F., "Addiction as an Attachment Disorder", Jason Aronson, Inc; 1 edition, 2004.
- Peterson, J. E., (1995). Field, J., (1995).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24*(5), 579-600.
- Rettberg, J. W. (2009). Freshly generated for you, and Barach Obama: How social media represent life.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4*, 451-466.
- Rice, F. Philip, Dolgin, K. Gale (1990). 청소년심리학 『adolescent :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서출판 198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idman, Allen, Aber, Mitchell, Feinman. (1994). The impact of school transitions in early adolescence on the self-system and perceived social context of poor urban youth. *Child Development, 65*(2), 507-522.
- Spraggins, A. (2009). *Problematic use of online social networking sites for college students'*. Prevalence, predictors, and association with well-being Ph.D. University of Florid.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W·Norton & Company.
- Tazghini, S., Siedlecki, K. L. (2013). A mixed method approach to examining Facebook use and its relationship to self-esteem.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3), 827-832.
- Wigfield, Kampathian (1991). Who am I and what can I do? children's self-concepts and motivation in achievement situations.

- Wilburn, Smith (2005). Stress,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in late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ilkinson, R. B. (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479-493.
- Wilson, K. Fornasier, S., & White, K. M. (2010). Psychological predictor of young adult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2), 173-177.
- Young, K.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 L. VandeCreek & T. Jackson (Eds.),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Vol. 17, 19-31),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tendency of SNS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Kim, Ji Eu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Sung Bong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tendency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480 first, second, and third graders in Jeju Island by questionnaire survey on youth attachment, SNS addiction tendency and self-esteem. Of the 480 copies collected, 440 copi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except for 40 copies with many questions or missing copies.

The measurement tool used the Adolescent Friendship Attachment Scale (AFAS) developed by Wilkinson to measure peer attachment, and measures the SNS addiction tendency developed by Jo Sung Hyun and Seo Kyung-hyun ( Respectively. In order to measure self-esteem, the Korean version of the test developed by Rosenberg was used in Korean by Lee Hoon - jin. For data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18.0 and

Sobel test was performed for significance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eer attach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stable attach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elf-esteem, bu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NS addiction tendency. The results showed that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SNS addiction tendency when the stable attachment was controlled, but the influence of the stable attachment on the SNS addiction tendency was not significant. As a result,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stable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tendency self-esteem.

Second, in the peer attach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voidance attachment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However, avoidance attachmen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NS addiction tendency. Also, when avoidance attachment was controlled, self-esteem showed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NS addiction tendency. In addition,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avoidance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tendency self-esteem because the influence of avoidance attachment on SNS addiction tendency was not significant.

Third, the anxiety attachment among the sub-factor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in peer attach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nxiety attach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SNS addiction tendency, and the higher the anxiety attachment, the higher the SNS addiction tendency. In addition,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SNS addiction tendency when the anxiety attachment was controlled, indicating that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tendency.

The results showed that self-esteem was not mediated by SNS addiction tendency among the sub-fact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but self-esteem was found to be mediated by anxiety attachment in SNS addiction tendency. Thus, a program that can enhance self-esteem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with anxiety attachment will help reduce the tendency to add to the SNS.

Key words: Stable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dolescent attachment, self-esteem, SNS addiction tendency.

## 부 록 목 차

부록1. 자아존중감 척도 .....	47
부록2. SNS 중독경향성 척도 .....	48
부록3. 또래애착 척도 .....	50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SNS사용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의 경우에 해당 된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항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낀 대로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는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에만 사용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3월

연구자 : 김 지 은 (제주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 김 성 봉 (제주교육대학원 상담심리)

※ 다음 인적사항은 정확한 자료처리를 위한 것이니 빠짐없이 응답해 주세요.

1. 성 별

① 남 ( )      ② 여 ( )

2. 학 년

① 1학년 ( )    ② 2학년 ( )    ③ 3학년 ( )

1. 아래의 문항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나타내 주는 난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	2	3	4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1	2	3	4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1	2	3	4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2. 다음은 여러분의 SNS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SNS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꼈는지 ○로 표시해 주세요. (SNS: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	SNS가 없다면 내 인생에 재미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1	2	3	4
2	SNS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1	2	3	4
3	항상 SNS에 대해서 생각한다.	1	2	3	4
4	SNS를 일단 시작하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1	2	3	4
5	SNS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늘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1	2	3	4
6	SNS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1	2	3	4
7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인간관계나 직업, 교육, 경력의 기회가 위협받거나, 위험에 처해 본적이 있다.	1	2	3	4
8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SNS를 사용한 적이 있다.	1	2	3	4
9	SNS를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	2	3	4
10	SNS로 인해 다른 활동이나 TV에 대한 흥미가 감소했다.	1	2	3	4
11	지나치게 SNS에 몰두해있는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12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면 SNS부터 확인한다.	1	2	3	4
13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SNS로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하다.	1	2	3	4
14	다른 사람에게 SNS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1	2	3	4
15	SNS를 한 가지만 이용하지 않고 여러 개를 사용하여 사람들과 설새 없이 소통한다.	1	2	3	4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6	SNS 때문에 원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잠들거나 잠을 이루지 못한다.	1	2	3	4
17	SNS를 통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 할 때 더 뿌듯하고 행복하다.	1	2	3	4
18	길을 걷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중에도 SNS를 사용한다.	1	2	3	4
19	SNS에 지쳐서 탈퇴나 계정을 없애지만 다시 돌아온다.	1	2	3	4
20	SNS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 외롭거나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한다.	1	2	3	4

3. 여러분과 나이가 비슷하고 학급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혹은 함께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 중 가장 친한 친구 한명을 떠올리면서 다음 문항들에 답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형편없는 하루를 보낸 날에 내 친구는 내 기분을 북돋아준다.	1	2	3	4	5
2	내 친구를 대신할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1	2	3	4	5
3	나는 친구를 믿는다.	1	2	3	4	5
4	친구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그 친구한테 화가 난다.	1	2	3	4	5
5	나는 내 친구에게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6	나는 내 친구가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7	이 친구와의 우정이 깨지면 괴로울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친구가 우리 사이에 충실하다는 것을 안다.	1	2	3	4	5
9	나는 친구와 나누는 친근함을 좋아한다.	1	2	3	4	5
10	나는 내가 언제나 친구에게 의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못하겠다.	1	2	3	4	5
11	나는 내 친구가 좀 더 이해심이 많았으면 좋겠다.	1	2	3	4	5
12	나는 친구와 내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기를 꺼린다.	1	2	3	4	5
13	나는 내 친구와 여러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	2	3	4	5
14	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내 친구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1	2	3	4	5
15	나는 내 친구와 연락(접촉)할 수 없을 때 그 친구한테 화가 난다.	1	2	3	4	5
16	나는 원하는 만큼 내 친구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나는 내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18	나는 내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	1	2	3	4	5
19	나는 내 친구와 가깝다고 느낀다.	1	2	3	4	5
20	나는 내 친구에게 기댈 필요가 없다.	1	2	3	4	5
21	나는 내 친구와의 우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1	2	3	4	5
22	밖에 나갈 때에 그 친구랑 함께 있으면 더 즐겁다.	1	2	3	4	5
23	나는 내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을까봐 염려된다.	1	2	3	4	5
24	나는 내 친구에게 자주 화가 난다.	1	2	3	4	5
25	나는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1	2	3	4	5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